

2015. 8. 24. ~ 8. 30. 주간

48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양파, 마늘 재배의향 속보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류,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동향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벼 무논점파 생산비·노동력 절감 효과 커

정책동향

농산물 큐레이터가 되어 농가도 돕고, 수입도 올리고!
2013년 농림업 생산액 46조 6,480억원

해외 농업정보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2014년 8월)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도 평년(4~14mm)과 비슷하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취청오이, 8월 정식의향 증가, 9월은 비슷
- 대파, 8~10월 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6%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 일 : 사과 · 배

- 사 과 : 전년보다 낮은 19,000~21,000원/10kg 전망
- 배 : 전년보다 낮은 34,000~37,000원/15kg 전망

▶ 과 채 : 애호박 · 수박

- 애호박 : 8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16,100원)보다 높은 16,000~20,000원/20개 전망
- 수 박 : 8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900원)보다 높은 상품 1kg에 1,400~1,600원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무등일보, 전남제일신문)

- ▶ 강진군 '영랑모란' 브랜드 상표출원
- ▶ 완도, 해풍 맞고 자란 노지 해변포도 '본격 출하'
- ▶ 무안군,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으로 소득증대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한국농어민신문, 전업농신문)

- ▶ KOTRA "베트남 건강식품 시장 진출, 인지도 향상 급선무"
- ▶ 농협-중국 화련그룹 수출확대 협약...홍삼·유자차 진출거점 확보
- ▶ 국산 여름 딸기, 세계 시장 진출 가속화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무화과 조기수확 재배법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 ▶ 소리로 수확 후 토마토 익는 시기 늦춘다.
- ▶ 신품종 '햇살' 개발, 품종 보호 출원!
- ▶ 파프리카 수경재배시 친환경 배지 이용관리
- ▶ 블루베리 유기재배시 피해 요인별 방제법 밝혀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신문)

- ▶ FTA...농업 수출단지 조성·정예 인력 육성해야
- ▶ 농업 6차산업화 추석맞이 기획판매전 참가하세요
- ▶ 농식품 보조금 및 재정사업 대폭 손질
- ▶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업 강대국 폴란드, 농약시장 급성장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범세계적 밀 과잉공급과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약화로 하락세로 돌아섬
 -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물 계약이 장중 일주일래 최고가를 보이며 혼조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함
 -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 상품시장의 침체와 중서부 지역의 우호 날씨로 인해 풍년이 전망되어 하락 마감함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대기업까지 버리고 고향 영암으로 내려와 무화과 재배
- ▶ 강진군 신전팍, 슈퍼푸드 '아마란스' 수확 한창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광복70년, 농업70년 농업기술대전(사진전·성과전시·체험·학술행사)

- 일 시 : 8. 3.(월) ~ 8. 31.(월)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장
- 내 용
 - ▷ 광복70년, 농업R&D 사진전 및 연구 성과 전시
 - ▷ 농업과학관 체험교실
 - ▷ 농업R&D를 통한 농업기술 성과와 미래 심포지엄

▶ 한국농수산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

- 모집학과 : 식량작물학과 등 11개 학과
- 정 원 : 390명
- 원서접수 : 전형별 8. 31. ~ 10. 12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전형별 상이
- 특 전
 - 입학금·수업료·교육교재·실습비 등 학비 전액 국비 지원
 - 전교생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단기 해외연수(2주 내외) 실시
 - 성적 우수자 해외 선진지 연수
- 의무사항 :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기간(6년)동안 농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f.ac.kr) 참조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8. 24. 기준/단위 : 원)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율(%) | |
|-------------|-----------|------------------|--------------|--------------|---------|---------|---------|----------|----------|
| | | 판매 단위 | 당일 (8/24) | 전주 (8/70)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식 작 물 | 쌀(일반계) | 20kg | 39,800 | 39,800 | 39,800 | 42,600 | 41,167 | ↓ 6.6 | ↓ 3.3 |
| | 콩(백태) | 35kg | 137,000 | 139,000 | 139,000 | 142,000 | 194,667 | ↓ 3.5 | ↓ 29.6 |
| | 고구마(밤) | 10kg | 28,200 | 30,400 | 34,000 | 27,550 | 29,500 | ↑ 2.4 | ↓ 4.4 |
| | 감자(수미) | 20kg | 25,400 | 26,000 | 25,440 | 23,250 | 26,683 | ↑ 9.2 | ↓ 4.8 |
| 채 소 류 | 배추(월동) | 1kg | - | - | 582 | - | - | - | - |
| | 양배추 | 10kg | 6,800 | 7,200 | 6,580 | 4,800 | 8,593 | ↑ 41.7 | ↓ 20.9 |
| | 오이(다다기계통) | 10kg | 22,000 | 21,333 | 27,467 | 30,944 | 38,664 | ↓ 28.9 | ↓ 43.1 |
| | 애호박 | 8kg | 9,800 | 11,000 | 15,600 | 19,250 | 28,577 | ↓ 49.1 | ↓ 65.7 |
| | 토마토 | 10kg | 21,200 | 17,000 | 19,960 | 17,350 | 25,153 | ↑ 22.2 | ↓ 15.7 |
| | 무(봄) | 20kg | - | - | 17,160 | - | - | - | - |
| | 당근 | 20kg | 29,600 | 29,600 | 31,000 | 48,500 | 36,227 | ↓ 39.0 | ↓ 18.3 |
| | 건고추(화건) | 60kg | 787,500 | 820,000 | 820,000 | 695,000 | 767,167 | ↑ 13.3 | ↑ 2.7 |
| | 풋고추 | 10kg | 22,800 | 25,800 | 28,640 | 46,350 | 36,810 | ↓ 50.8 | ↓ 38.1 |
| | 마늘(난지) | 10kg | 46,000 | 46,000 | 47,720 | 33,400 | 35,167 | ↑ 37.7 | ↑ 30.8 |
| | 양파 | 20kg | 28,400 | 27,600 | 23,840 | 10,000 | 17,373 | ↑ 184.0 | ↑ 63.5 |
| | 대파 | 1kg | 1,950 | 2,020 | 1,966 | 1,200 | 1,658 | ↑ 62.5 | ↑ 17.6 |
| | 파프리카 | 5kg | 14,200 | 13,600 | 12,400 | 23,400 | 31,313 | ↓ 39.3 | ↓ 54.7 |
| | 방울토마토 | 5kg | 13,400 | 12,200 | 12,280 | 9,450 | 18,683 | ↑ 41.8 | ↓ 28.3 |
| | 수박 | 1개 | 15400 | 15400 | 14120 | 9200 | 18520 | ↑ 67.4 | ↓ 16.8 |
| 과 일 류 | 사과(후지) | 15kg | 66,800 | 67,800 | 66,800 | 91,000 | 81,750 | ↓ 26.6 | ↓ 18.3 |
| | 배(신고) | 15kg | 30,800 | 38,600 | 39,600 | 80,000 | 52,785 | ↓ 61.5 | ↓ 41.7 |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율(%) | |
|------------------------------|-----------|------------------|--------------|--------------|---------|---------|---------|----------|----------|
| | | 판매 단위 | 당일 (8/17) | 전주 (8/10)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특용 작물 | 참깨(백색) | 30kg | 532,000 | 532,000 | 532,000 | 530,000 | 550,100 | ↑ 0.4 | ↓ 3.0 |
| | 들깨 | 45kg | 420,000 | 420,000 | 420,000 | 438,000 | 346,733 | ↓ 4.1 | ↑ 21.1 |
| | 새송이버섯 | 2kg | 7,400 | 7,300 | 7,600 | 7,700 | 8,215 | ↓ 3.9 | ↓ 9.9 |
| 축 산 물 (소 매 가) | 쇠고기(한우등심) | 100g | 7,223 | 7,259 | 7,069 | 6,702 | 6,535 | ↑ 7.8 | ↑ 10.5 |
| | 돼지고기(삼겹살) | 100g | 2,272 | 2,233 | 2,271 | 2,115 | 1,972 | ↑ 7.4 | ↑ 15.2 |
| | 닭고기 | 1kg | 5,123 | 5,356 | 5,011 | 5,206 | 5,831 | ↓ 1.6 | ↓ 12.1 |
| | 계란(특란) | 30개 | 5,755 | 5,793 | 5,782 | 5,925 | 5,528 | ↓ 2.9 | ↑ 4.1 |
| | 우유 | 1리터 | 2,547 | 2,548 | 2,548 | 2,549 | 2,308 | ↓ 0.1 | ↑ 10.4 |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8. 24.기준)

| 구 분 | | 금주가격 | 전주가격 | 1년전 | 등 락 율(%) | |
|----------------|----|----------|----------|----------|----------|----------|
| | | | | | 전주 대비 | 전년 대비 |
| 큰 소 (600Kg) | 암 | 5,692 천원 | 5,503 천원 | 4,371 천원 | ↑ 3.4 | ↑ 30.2 |
| | 거세 | 6,949 " | 6,741 " | 5,587 " | ↑ 3.1 | ↑ 24.4 |
| 송아지 (6~7월) | 암 | 2,651 " | 2,643 " | 1,880 " | ↑ 0.3 | ↑ 41.0 |
| | 수 | 3,252 " | 3,240 " | 2,704 " | ↑ 0.4 | ↑ 20.3 |
| 육우(600Kg) | | 3,337 " | 3,144 " | 2,950 " | ↑ 6.1 | ↑ 13.1 |
| 젖소수송아지(7일령) | | 291 " | 279 " | 19 " | ↑ 4.3 | ↑ 1431.6 |
| 돼지(110kg) | | 432 " | 410 " | 422 " | ↑ 5.4 | ↑ 2.4 |
| 육계(원/kg) | | 1,211 원 | 1,206 원 | 1,523 원 | ↑ 0.4 | ↓ 20.5 |
| 계란(원/특란10개) | | 1,209 " | 1,215 " | 1,392 " | ↓ 0.5 | ↓ 13.1 |
| 오리(원/kg) | | 2,333 " | 2,333 " | 3,342 " | - | ↓ 30.2 |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 일 별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균(계) | 25.2 | 24.9 | 0.3 | 28.4 | 28.9 | -0.5 | 22.0 | 22.0 | 0.2 | 7.9 |
| 8. 27.(목) | 25 | 25.2 | -0.2 | 28 | 29.2 | -1.2 | 22 | 22.2 | 0.2 | 8.4 |
| 8. 28.(금) | 25 | 25.1 | -0.1 | 28 | 29 | -1 | 22 | 22.2 | 0.2 | 7.4 |
| 8. 29.(토) | 25.5 | 25 | 0.5 | 29 | 29 | 0 | 22 | 22.1 | 0.1 | 6.8 |
| 8. 30.(일) | 25.5 | 24.9 | 0.6 | 29 | 29 | 0 | 22 | 22 | 0 | 6.2 |
| 8. 31.(월) | 25.5 | 24.8 | 0.7 | 29 | 28.8 | 0.2 | 22 | 21.9 | 0.1 | 8.6 |
| 9. 1.(화) | 25 | 24.7 | 0.3 | 28 | 28.6 | -0.6 | 22 | 21.8 | 0.2 | 8.9 |
| 9. 2.(수) | 25 | 24.5 | 0.5 | 28 | 28.6 | -0.6 | 22 | 21.6 | 0.4 | 8.9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오이·대파 재배 동향

□ 취청오이, 8월 정식의향 증가, 9월은 비슷

- 8월 정식면적은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에서 억제작형이 일부 확대되어 작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 9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보성, 강진에서는 신규유입 농가의 축소로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충남 천안의 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순천에서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보급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파, 8~10월 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6% 증가

- 8~10월 대파 정식의향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봄대파 출하가 종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파를 재정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충청지역 시설대파와 전북지역 노지 봄대파 출하가 완료된 포전에서 정식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12~내년 2월 출하량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 일 : 사과 · 배

○ (사 과)

- 사과(쓰가루)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19,000~21,000원/10kg 전망

○ (배)

- 배(원황)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34,000~37,000원/15kg 전망

과 채 : 애호박 · 수박

○ (애호박)

- 애호박 8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16,100원)보다 높은 16,000~20,000원/20개 전망

○ (수 박)

- 수박 8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900원)보다 높은 상품 1kg에 1,400~1,600원으로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강진군 '영랑모란' 브랜드 상표출원

- 강진군은 지난 17일 모란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모란 브랜드를 '영랑모란'으로 정하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 군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마쳤으며 상표 등록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 모란은 장미, 수국, 작약과 함께 강진군을 대표하는 화종으로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같은 시와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조성중인 세계모란공원과 함께 산업화 했을 경우 그 잠재적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에 군은 '영랑모란'의 상표가 출원됨에 따라 본격적인 모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영랑생가에 식재되어 있는 종자를 채종해 실생묘를 육묘하여 관내 관심농가에게 분양하고 생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배면적을 확대 할 예정이다.
- 재배면적 확보 후 관련 연구기관등과 함께 모란 종자 추출물을 통한 모란유, 향수, 비누, 샴푸 등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모종을 판매해 국내 소비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강진군은 모란산업 1번지로 모란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에 최적"이라며 "이번 상표출원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화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작년말 한국화훼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란연구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모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 완도, 해풍 맞고 자란 노지 해변포도 ‘본격 출하’

- 청정해역 환경과 친환경농법 재배로 품질 우수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 자연그대로 노지 해변포도”가 8월말 본격 출하한다.
- 해변포도는 청정해역의 햇살과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과 당도가 높고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으로 포도가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이 비가림 시설, 바이오 기능수 정수장치 등의 지원으로 예년보다 당도가 높고 고품질인 포도가 생산될 수 있었다.
- 해변포도를 처음 먹어본 관광객은 다른 지역 포도에 비해 당도가 높고 끝맛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여 식감이 좋다고 말하였다.
- 노지포도는 8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판매하며 포도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당도 측정을 하여 당일 수확한 포도만 판매할 계획이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윤열)에서는 앞으로 “현재 해풍의 농업 이용가치 구명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해풍의 가치발견에 힘쓰고 있다.”며, “해풍 맞고 자란 해변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완도자연그대로 농법 생산으로 포도를 브랜드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제일신문

■ 무안군,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으로 소득증대

-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설명 및 재배기술 교육 실시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최근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2015년 무안양파 기계정식 완전정착을 비롯해 무안군 전 지역으로의 확대, 조생 및 만생양파 완전 기계화를 목표로 올해 사업 추진 방법을 설명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최신 재배기술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
- 김철주 무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양파가격 상승세가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양파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양파농사 관행 재배농가는 3.3m²당 17~18kg 가량을 수확했으나 기계정식 농가는 동일 면적에서 30kg까지 수확량이 증가했다. 앞으로 육묘상자를 비롯해 멀칭비닐, 종자코팅, 상토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대로 돈 버는 농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을 2012년 김철주 군수 취임 해부터 농정 최우선 과제로 양파농사 전 과정 기계화를 선정, 2013년 4농가 4ha의 시범포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 221농가 300ha에 이르기까지 기계화 면적을 확대했다.

* 출처 : 전남제일신문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KOTRA "베트남 건강식품 시장 진출, 인지도 향상 급선무"

- 베트남 건강식품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및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베트남 기능성식품시장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 증가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25~30% 수준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 품목 수도 지난 2011년 3560개에서 지난해 8200개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1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건강식품은 주로 교민마켓 위주로 유통돼,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 정관장 등 일부 브랜드를 알고 있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가짜 중국산 제품들의 대량 유입으로 신뢰도가 낮아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전문가들은 베트남 건강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지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제품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수입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만큼, 이들이 주로 가는 대형마트·슈퍼마켓과 연계한 판촉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또한 인삼을 제외한 다른 건강식품의 수출 판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및 신규바이어 발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협-중국 화련그룹 수출확대 협약..홍삼·유자차 진출거점 확보

- 농협중앙회가 홍삼제품, 유자차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최대 유통회사인 화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상재 화련 켄백스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이를 통해 화련그룹은 진품 한국산에 대한 공급라인을 확보하게 됐고, 농협과 화련 켄백스는 중국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 화련그룹은 중국 내에 86개 백화점과 2400여개의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켄백스와 공동투자한 화련켄백스(공동대표 김상재, 중웨이보)를 지난 7월 설립했다.
- 농협중앙회는 화련 켄백스를 통해 홍삼제품인 ‘한삼인’과 유자차를 비롯해 중국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화련 켄백스는 ‘화련’ 상호를 사용하는 중국내 모든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몰에 대한 유통을 담당한다.
- 이상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화련그룹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농협과 화련이 우수품질의 한국산임을 보증하는 새로운 판매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화련 켄백스를 통해 화련그룹에 공급되는 모든 한국 상품에는 한국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원산지추적시스템을 도입,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국산에 대한 고객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국산 여름 딸기, 세계 시장 진출 가속화

- 신품종 보급후 자급률 30%로 성장...베트남 등 해외서도 인기 -
- 상품성이 뛰어난 우리 품종 여름 딸기가 농가와 산업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수입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수량이 많은 국산 여름 딸기를 개발·보급해 자급률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 우리나라 여름 딸기 생산량은 연간 약 385톤. 2007년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수입한 품종이 대부분으로 로열티(사용료)를 외국 업체에 지불해야 했다.
- 농진청은 이를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여름 딸기 품종 개발에 착수했다.
- 농진청에서 그동안 개발 보급한 국산 여름 딸기는 ‘고하(2007)’, ‘열하(2013)’, ‘장하(2014)’ 세 품종이다. ‘고하’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사계성 여름 딸기로 과실 모양과 맛이 좋으며 전북 무주, 강원 강릉 등에서 3.6ha를 재배하고 있다.
- ‘열하’는 30g 이상의 큰 열매가 많이 생산되어 케이크, 찹쌀떡딸기 등 디저트 가게에서 인기가 많고, 전북 무주, 강원 양구 등에서 약 1ha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장하’는 고온에서도 열매 모양이 좋고 당도가 9.6브릭스(Brix)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이들 세 품종은 수입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수입: 6Brix~7Brix, 국산: 8Brix~9Brix) 생산량이 30% 이상 많아 재배 농가와 가공 업체에서도 인기가 높다.
- 2010년과 지난해 전국 여름 딸기 재배 면적을 보면 수입 품종은 16.2ha에서 13ha로 줄고, 국산 품종은 2.9ha에서 5ha로 늘었다.

- 
-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자급률은 30%를 넘었으며, 2017년에는 5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의 한 제과 업체는 ‘고하’ 딸기를 하루 100kg 이상 납품 받아 빵과 생과일주스 등 30여 가지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강릉 등 디저트 카페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 농진청에서는 여름 딸기를 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고하’는 2011년 베트남, 중국에 품종을 출원하고 베트남, 미얀마 등 5개 나라에서 해외적응성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한 딸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베이커리 30여 곳에 하루에 50kg~60kg를 납품하고 있다.
 -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정진철 소장은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국내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딸기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전업농신문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무화과 조기수확 재배법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

- 전남농업기술원, 무화과 조기수확용 보온피복재 연구 -

- 항암효과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무화과는 소화 및 피부미용에 효과가 우수하다. 또 이유식이나 수술 후 건강회복에 좋은 과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이와 관련 전남 도내 무화과 재배농가에서는 조기수확을 위한 재배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 기존 무화과 재배농가에서는 월동기간에 난방기를 이용하여 가온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이 재배법은 무화과를 조기 수확하여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는 있지만 가온에 필요한 난방비 부담이 커서 많은 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화과 조기수확용 보온피복재 연구를 2015년부터 실시하여 오는 '16년까지 2년 동안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실증재배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증재배는 영암군 금정면 무화과 농가에서 실시하는데, 난방기를 작동 시키지 않고 1월 중순에 피복하여 재배하는 기술로 일반 시설 하우스 재배보다 1개월 정도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재배기술이다.
- 보온피복재 연구가 완료되면,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1달 정도 빠른 무화과 수확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암군 무화과 농가에 추진되는 연구는 월동기간에 비닐, 보온덮개, 축열주머니, 열선 등 다양한 보온 피복재료를 단용 및 혼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보온효과는 물론 보온재료별 피복시기, 피복재료 제거 시기가 과일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 과수연구소 박재옥 연구사는 ‘생산비를 적게 들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무화과 조기수확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16년에는 무화과 재배기술을 도내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소리로 수확후 토마토 익는 시기 늦춘다

- 농촌진흥청, 음파 이용 토마토 선도 연장 기술 개발 -

- 수확한 토마토에 특정음역대의 음파를 쏘아 토마토의 익는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음파를 이용해 수확한 토마토 열매의 익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 우선, 수확 후 토마토의 익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음파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음역대(0Hz, 250Hz, 500Hz, 800Hz, 1kHz, 1.5kHz)의 단일음파를 녹색기(Mature Green Stage) 상태의 토마토 열매에 6시간 동안 처리했다.
- 그 결과, 12일 후 전체 토마토 가운데 250Hz에서는 22%, 500Hz에서는 18%, 800Hz에서는 5%, 1kHz에서는 40%, 1.5kHz에서는 2% 이하로 익는 정도가 늦춰져 1kHz의 음파에서 익는 정도의 지연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은 음파처리 토마토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열매에 비해 35% 정도 적게 발생했고, 호흡량 또한 음파처리 토마토가 무처리에 비해 33% 정도 낮게 나타났다.
- 과일 껍질의 적색 정도를 나타내는 Hunter 'a'값(수치가 높을수록 적색에 가까움)은 음파처리 토마토가 0으로 무처리 토마토(10)에 비해 착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과실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경도는 무처리 토마토가 10N, 음파처리 토마토가 18N으로 나타났는데, 음파처리 시 단단함이 1.8배 정도 높게 유지됐다.
- 또한, 음파처리 토마토를 대상으로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간 동안 발현양이 현저히 줄었으며 최대 1/3,000까지 줄어든 유전자도 있었다.
- 이를 통해 음파처리로 토마토 과실 내 에틸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어 따라 익는 정도가 늦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파처리로 숙성을 늦추는 정도는 무처리에 비해 개체별 차이를 고려해 3일~4일 정도 늦추는 결과를 보였다.
- 이번에 개발한 음파처리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파처리 프로그램 운영도 매우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수확 후 농산물의 저장에 드는 비용은 저장고 설비와 운용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산물 저장을 위한 각종 예냉기에 음파처리 장비를 장착할 경우, 예냉에 의한 호흡 억제와 음파 처리에 의한 에틸렌 발생 억제의 복합 효과로 저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농산물은 수확 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손실률이 평균 10%~35%에 이른다. 2013년 토마토 과실의 총 생산액이 900억 원 정도였다. 손실률을 25% 기준으로 보면 약 2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음파처리에 의한 토마토 과실의 저장성 개선은 수확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제10-2015-0065251)을 마쳤으며, 관련 논문은 수확 후 농산물 관리부분 관련 국제 저명학술지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온라인판에 7월 28일자로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 토마토의 경우, 국내에서는 색이 바뀌는 시기(변색기, Breaker stage)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다. 열매가 녹색인 시기일 때 실험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변색기 열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음파 처리 조건을 추가로 선별할 예정이다.
- 또한, 다른 호홉급등형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 조건을 선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연구관은 “수확 후 관리란 수확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품질은 높이고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제2의 생산’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작업이다.”라며, “토마토를 시작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관련 기초기반 연구에 힘을 쏟고, 농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장친화형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신제품 ‘햇살’ 개발, 품종 보호 출원!

- 침체된 버섯시장 활력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

- 재배기간이 길어 농가에서 재배를 꺼리는 버섯 중에 ‘느티만가닥버섯’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균에서 버섯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0일 전후의 배양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이 느티만가닥버섯은 버섯 균이 자라는 속도가 다른 버섯에 비해 매우 느려 100일 전후, 길게는 11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느티만가닥버섯의 긴 재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신품종이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에서 개발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기호도는 높으나 농가에서의 재배 효율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느티만가닥버섯에 대해, 품질은 높이고 재배기간은 단축시킨 신품종 ‘햇살’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전하고, 새로운 느티만가닥버섯 품종등록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하였다고 밝혔다.
- 만가닥버섯은 주름버섯속 송이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테르펜에 의한 항종양효과, 열수추출물에 의한 항암효과, 항알러지 효과, 힙신에 의한 항균효과, 말모린에 의한 항바이러스효과, 면역증강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버섯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독특한 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체리듬조절, 뇌졸중, 심장병 등 성인병에 대한 예방과 개선효과를 주는 약리작용도 보고된 바 있다.
-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 팽이버섯과 함께 느티만가닥버섯의 재배 및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어려운 재배방법과 소비시장 형성 실패로 주요 식용버섯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 이번에 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느티만가닥버섯 신품종 ‘햇살’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연구과제로, 배지제조 후 버섯종균접종과 배양, 생육단계를 거쳐 수확까지 63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

- 경남도농업기술원 김민근 박사는 “시장 가능성이 보이는 이 버섯의 가장 큰 단점을 새 품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최근 침체되어 있는 버섯 소비시장 활성화와 느티만가닥버섯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파프리카 수경재배시 친환경 배지 이용관리

- 적정 수분관리로 상품과율 향상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파프리카 재배시 환경보전과 재배기술 안정화를 위한 코이어배지 재배관리법에 대해 19일 발표하였다.
- 코이어란 야자열매의 딱딱한 과피를 이루고 있는 섬유를 총칭하는 용어로 야자열매 가공할 경우 발생하는 천연 부산물을 재가공하여 원예작물 재배시 인공토양 역할을 하는 배지 재료로 기존의 암면 대체 배지로 최근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 파프리카 수경재배 초기에는 암면배지를 사용하였지만, 사용 후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과 이용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코이어 배지의 이용 농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코이어배지 이용 재배시 고온기에는 파프리카 정식 후 배지의 함수량을 55~65%로 조금 높게 유지하여 배꼽썩음과나 일소과 등의 생리장해를 줄여 상품과율을 높이고, 사용했던 배지는 염류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척하고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시 15%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도 농기원 이재택 연구사는 "파프리카 재배기술의 안정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새로운 배지 발굴 및 환경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 블루베리 유기재배시 피해 요인별 방제법 밝혀

- 체계적인 방제를 위한 기초 작업 완료, 유기재배 농가에 방제법 안내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 유기재배시 문제가 되는 주요 피해 요인을 밝혀 방제요령을 안내했다.
- 블루베리 유기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해, 두더지, 조류, 블루베리혹파리, 검은푸른췌기나방 등이 피해를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먼저, 블루베리에는 동해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블루베리 품종 가운데 동해에 강한 것으로는 채들러, 얼리블루, 딕시, 토로, 엘리자베스, 노스랜드 등이 있다.
- 블루베리 포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농가에서는 품종 선택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블루베리 포장의 방조망 그물 크기가 해충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밝혀냈다.
- 그물 크기가 1×1cm(가로×세로) 방조망 보다 0.5×0.5cm 방제망을 설치했을 때 담배거세미나방 및 파밤나방 등 크기가 큰 해충의 밀도가 40% 이상 줄어들어 해충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블루베리혹파리 성충은 4월경에 처음 발생하여 1년에 4~5회 정도 증식하는데 청색 및 황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밀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해충 유인에는 황색 보다 청색트랩이 20% 정도 유인효율이 높고 끈끈이트랩에는 혹파리 성충뿐만 아니라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도 채집이 잘 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서동환 연구개발국장은 “사과원 등 과수포장뿐만 아니라 유기재배 블루베리 포장에도 피해를 많이 주는 두더지를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더지 전용트랩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개량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출처 : 경북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FTA…농업 수출단지 조성 · 정예 인력 육성해야

- 전남도, 19일 농업 경쟁력 제고 용역 중간보고회…식품외식산업 등 대안 제시 -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남지역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2천 69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돼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해 발작물 경영체와 식품외식산업, 정예농업인력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전라남도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의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52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농산물 수입액의 80%를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산물의 평균관세(52.7%)는 다른 나라(미국 4.7%·EU 1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체결됐지만,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시장 보호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 52개 나라와의 FTA 체결이 전라남도의 농업 생산 감소액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2천 69억 원이고, 15년간 누적 감소액은 3조 1천 39억 원으로 전망됐다.

-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첨단 수출원예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재구축, 밭농업 경쟁력 강화, 들녘경영체 확대, 외식산업 육성,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시책 추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보고회에서는 또 대학 교수,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김성일 FTA대책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전남 미래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문가와 도의회 FTA 대책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용역 내용에 반영하고 다듬어 10~20년 후 전남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알찬 보고서를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개방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업 6차산업화 추석맞이 기획판매전 참가하세요

- 전남도, 25일 시군서 접수...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서 판매 -
- 전라남도는 전남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와 함께 ‘6차산업화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추석맞이 기획판매전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올 상반기부터 (주)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와 6차산업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은 전국 매장 중 매출규모 약 12위로 호남권을 대표하는 할인매장이다.

- 행사는 롯데마트월드컵점 시기별 매출추이를 분석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친환경농산물 등을 가공한 추석 선물세트 위주로, 2차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제수식품과 과일, 나물류 등 신선식품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운영 규모는 10개 부스(5×5M)이고, 참가 대상 품목은 6차산업 경영체 등에서 생산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한과류, 떡류, 주류 등 우수 가공식품이다.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바이어 등과 협의해 최고의 제품을 선발해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직거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행사 결과 매출이 높은 상품은 바로 롯데마트 매장으로 입점토록 연계할 방침이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산 좋은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가공제품이 명절 고마운 분들에게 뜻 깊은 선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남의 6차 산업화 우수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체험·관광 등 3차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6차산업이란 1차 농산물과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유통 등)를 같이 추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보조금 및 재정사업 대폭 손질

-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성과내기로 -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8월 14일~15일 광복절 연휴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 8월14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하였고, 8월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 현장에서 농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하여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동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한편,
 -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관리 강화 및

현장소통을 통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작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보고 이 단지가 생산, 계약부터 저장, 도정, 가공까지 일괄공정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쌀에 대한 차별적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 단지 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인증 신청을 한 농가가 20% 밖에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렇게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라 진단하고,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서둘러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였다.

□ 공주시 석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이인면 운암리)에서는 국민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축산농가와 시설관리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식품부-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경영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하여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및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 앞으로도,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함과 동시에
 - 2016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자금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 단속기관 따라 적용 법률·처벌 수위 달라 혼란 초래 -
 - 원산지미표시, 농관원 '행정처분' 관세청은 '형사처벌' -
 - 수산물만 해수부서 통합관리...일관된 사후추적 가능 -
- 수입농산물의 유통 등 사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 이는 농산물 수입 이후 원산지 등의 유통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흩어진데다 각 기관별 처벌수위도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

이력관리에 대해 이미 해양수산부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점도 수입 농산물 사후관리 일원화의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다.

- 현재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유통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이들 기관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하지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업자가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유통하다 적발돼도 단속기관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처벌수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 농관원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둔갑이나 거짓표시, 미표시 등의 표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한다. 농관원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경우 원산지법에 따라 위반업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형사처벌 수위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 이에 반해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뿐만 아니라 미표시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농관원 기준과 다른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법과 차이를



보인다.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농관원과 관세청에 따라 적용
별률 및 처벌기준이 다른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수입 수산물은 국내 유통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일관된
사후추적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까지 포함되는데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명태 등의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 반입된 이후 어느 경로를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됐는지
이력관리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하고 그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 아울러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소비자 기피
현상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수산물 유통관리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된 수산물 유통 및 품질
관리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입수산물의 국내
반입 이후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이 이력추적에 따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며 “수입농산물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비용 절감 등이 가능한 만큼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8. 해외 농업정보

◆ 농업 강대국 폴란드, 농약시장 급성장

- 2014년 폴란드 내 농약 판매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7억 1,400만 유로(30억 즈워티)수준으로 추산됨.
- 고품질 농작물 대량생산을 위해서 잡초와 해충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농약과 같은 농작물 보호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농약이 필요함.
-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곡류, 야채, 과일 등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가 초래되어 농업부문에서 농약의 중요성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글로벌 리더인 Syngenta에 따르면 폴란드 농약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두 자리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또한 Syngenta Polska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폴란드에서 밀 재배지역이 50ha 이상인 경우 매년 1ha 당 약 100달러를 농약에 투자하고, 1ha 당 평균 4톤의 곡물을 생산하였음.
- 반면 독일 농부들은 300달러를 투자하여 7톤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어 폴란드 농작물 생산성 및 효율성은 앞으로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농업 부문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로 인해 식량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농식품경제협회(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에



따르면, 폴란드 내 판매되는 농약 규모는 2만 1,900톤이며, 이 중 1만 7,500톤을 수입함. 살충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곰팡이 방지제, 제초제 등은 주로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음.

- 유럽에서 통용되는 농약 규제 사항은 물론이고, 폴란드 자체적으로도 농약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한 수준임. 농약과 관련된 규제 사항들은 일일 섭취허용량(ADI), 잔류허용량(MRL), 급성기준노출량(ARFD)과 같은 농약 잔류기준이 지정되어 있음.
- 농약에 대한 규제는 기타 화학약품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농약 출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실제 많은 농약 제품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농약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년, 비용은 평균 약 2억 유로임.
- 한편 폴란드농작물보호협회(PSORA)는 유럽 농약제품의 규제가 심해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오일씨드(oil seed)는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을 포함한 다른 곡물의 경우 40%이상, 과일과 채소류의 경우 3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최근 폴란드 농약 시장이 급성장하고, 특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은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임.
-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서유럽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농약 규제가 심하고 등록비가 비싸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음. 그러나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브리핑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8. 24.(시카고 선물거래소)

중국침체 및 날씨 영향에 주요 곡물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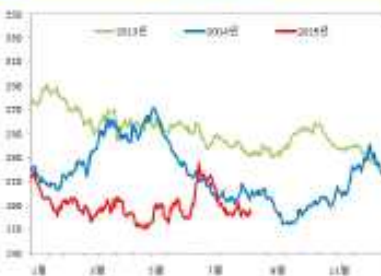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 구분 | 기준일 ('15.8.21) | 전일대비 | 전월평균 ('15.7) | 2014 평균 |
|-----|-------------------|-------|-----------------|------------|
| 밀 | 183.50 | ▼1.3% | 201 | 216 |
| 옥수수 | 143.77 | ▼1.6% | 160 | 164 |
| 대두 | 332.60 | ▼1.8% | 372 | 455 |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9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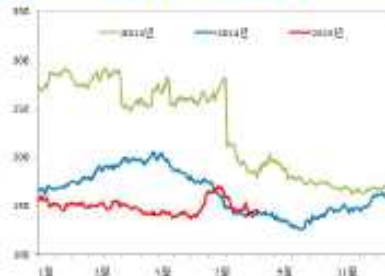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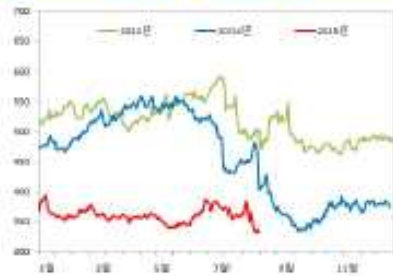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범세계적 밀 과잉공급과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로 목요일 2% 반등이래 하락세로 돌아섰. 달러화 약세와 예상보다 적은 캐나다산 밀 생산 및 거래는 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은 2015년 밀 수확량을 2천5백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년전 2천9백만 톤과 평균 거래량 2천6백만 톤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물 계약이 장중 일주일래 최고가를 보이며 혼조세를 보인다 하락 마감함. 미국농무부(USDA)는 매우 긍정적인 옥수수 작황 상태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옥수수가격 또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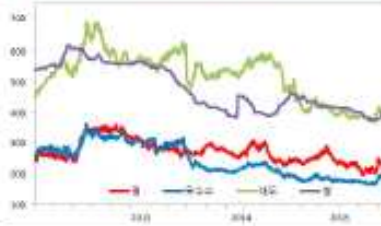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 상품시장의 침체와 중서부 지역의 우호 날씨로 인해 폭락이 전망되어 하락 마감함. 대두 생산량은 많은 거래자들이 미국 정부의 전망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문 농부들은 에이커 당 평균 46.5부셀, 약3.89십억 톤, USDA는 에이커 당 평균 47부셀로 약 3.91십억 톤이 수확 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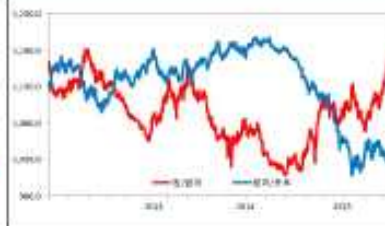
관련동향

- 김프산 수출가격은 특별한 소식 없이 보합세 유지.
-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지표 부진, 미 공급과잉 우려, 주요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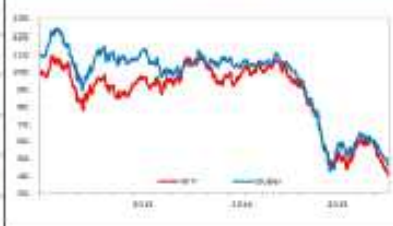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 구분 | 기준일 | 전일대비 | 구분 | 기준일 | 전일대비 |
|--------------|-----|-----------|------|-------|--------------|
| 곡물수출가격 (FOB) | 밀 | 206 ▲1.5% | 환율 | 원/달러 | 1185.1 - |
| | 옥수수 | 168 ▲0.6% | | 달러/유로 | 1.1228 ▲1.0% |
| | 대두 | 370 ▲1.4% | 국제유가 | WTI | 40.45 ▼1.7% |
| | 쌀 | 376 ▼1.1% | | Dubai | 46.23 ▼1.1% |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BTC Gulf), 대두(US Gulf), 환(Thailand 100% Grade B), WTI(9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8.20(수출가격), '15.8.21(환율), '15.8.2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제이드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고소득 농업사례

■ 대기업까지 버리고 고향 영암으로 내려와 무화과 재배

- 블로그·카카오톡·K-파머스 통한 체험단 계획 -
- "작목 확실하게 선택한 뒤 미래 보고 귀농해야" -
-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조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있다고 보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무화과 특성을 살린 잼과 건과 가공제품을 출시한 영암 '마케오니 꽃무화과 EM 농장'의 고건(33) 대표.
- 식품 관련 학과를 나온 고 대표는 대기업에 합격해 3년간 근무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난 2011년 과감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부모님이 있는 영암으로 내려온 청년 농부다.
- 고 대표가 귀농을 한 계기는 무화과가 25년째 부모님이 영암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는 작목이고, '신이내린 과일'이라 할 만큼 가능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소득이 높고 다른 과수에 비해 병충해 관리 등에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소요돼 적은 인력으로도 넓은 농장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고 대표는 "부모님도 좋은 기업에 다니는데 왜 고생하려냐고 말리셨지만 식품 관련 업무를 보면서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무화과는 건강식품으로 알려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장성이 떨어져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상품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고 대표는 고향에 내려온 뒤 무화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통해 무화과 가공제품 개발에 나서 '슬라이스 건 무화과'와 '무설탕 비타민D 무화과 잼' 등 2개 제품을 출시했다.
- 다이어트 여성고객과 제과 제빵원료용으로 개발한 '슬라이스 건 무화과'는 고 대표가 개발한 특별한 건조방법과 슬라이스 형태로 가공, 무화과 색상과 씨앗의 황금색 색감을 그대로 살렸으며 단 맛이 매우 강한 기존 무화과와 차별화했다.
- 건물 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 비타민D 결핍이 우려되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한 '무설탕 비타민 D 무화과 잼'은 설탕 대신 프락토 올리고당을 활용하고, 햇볕에서 자연적으로 건조시킨 표고버섯에 비타민 D 함량이 높다는데 착안,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해 제품화에 성공했다.
- 이렇게 개발한 무화과 제품은 과육 속에 황금색 색감의 씨앗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다산과 사랑의 스토리로 담아 '황금씨앗 (Gold Seed)'이란 브랜드로 만들어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다.
- 고 대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생물 농법 실천을 위해 농장이름에도 유용미생물을 의미하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용어를 넣었다"면서 "앞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해 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K-파머스를 통한 체험단 운영,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 고 대표는 "앞으로 무화과 체험농장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현재 노지재배에서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비가림 재배로 발전시켜



무화과의 당도와 경도를 높이고 무화과 가공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체험농장도 구상 중이다.

- 고 대표는 “가을에만 생산되는 무화과의 계절성 때문에 유희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문제점 해결과 기상재해 경감 등을 위해 현재 재배되고 있는 표고버섯과 도라지 재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 대표는 귀농인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 "귀농을 위해서 전남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 기술센터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한다"며 "선택작목을 확실하게 선택한 뒤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귀농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강진군 신전팜, 슈퍼푸드 '아마란스' 수확 한창

- "당뇨·고혈압·피부노화 예방효과 탁월" -

- 전남 강진군 신전면 노해마을 '신전팜'에서는 요즘 아마란스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 아마란스는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풍부해 당뇨병과 고혈압, 피부노화 방지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 신전팜 농장은 한명학·김윤희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란스를 주작목으로 작두콩,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아마란스의 어원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고산지대에서 5천년 전부터 재배됐으며, 신이 내린 곡물이라고 불리우며 영양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병충해가 적어 재배가 용이한 친환경 작물이다.

- 신전팜은 올해 처음으로 아마란스를 3천300m² 재배해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 아마란스 곡물은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마란스 잎과 줄기를 가공한 차, 즙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 한명학씨는 “아마란스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토양활용도가 높은 작물이다”며 “특히 강진군은 기후가 따뜻하고 토양이 곡물재배에 적합한 환경이어서 앞으로도 새로운 곡물 재배를 시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동근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능성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마란스를 비롯한 신곡물의 재배가 필요하나, 선불리 대규모로 시도한다면 실패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적응과정과 유통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후 점차 면적 확대와 가공품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 남도일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광복70년, 농업70년 농업기술대전(사진전·성과전시·체험·학술행사)

▷ 광복70년, 농업R&D 사진전 및 연구 성과 전시

- 일 시 : 8.3(월)~8.31(월)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장
- 내 용 : 광복 이후 현재까지 우리 농업·농촌의 희귀한 사진들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민에게 없어서 안 될 생활 속의 농업기술 10가지, 더불어 미래의 유망한 기술

▷ 농업과학관 체험교실

- 일 시 : 8.10(월)~8.13(목)
- 장 소 : 농업과학관 1층 체험교실
- 내 용 : 농촌진흥청의 주요 연구 분야를 직접 체험
(월)누에체험 (화)DNA체험 (수)곡물아트 (목)화분 만들기 (금)치즈만들기

▷ 농업R&D를 통한 농업기술 성과와 미래 심포지엄

- 일 시 : 8.11(화)~8.13(목)
- 장 소 : 소속기관별 강당
- 참여대상 : 일반 국민, 대학, 학회, 출연연, 연구기관 등
- 주요행사

| 구 분 | 주 제 | 일 시 | 장 소 |
|--------------|------------------------------|----------------------|------------------|
| 농업기초 기반분야 | 농업기초과학 R&D 성과와 미래 | 8.11.(화) 14:00~17:00 |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 |
| 식량분야 | 녹색혁명 달성과 쌀의 변신방 안 정립 | 8.12.(수) 13:30~17:00 | 국립식량과학원 대강당 |
| 원예특작 분야 | 미래 성장동력 종자주권 확립 방안 모색 | 8.13.(목) 14:00~17:50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대강당 |
| 축산분야 | 축산업 성장을 이끈 연구성과 와 미래 연구방향 | 8.13.(목) 13:30~16:30 |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 |

◆ 한국농수산대학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

- 모집학과 : 식량작물학과 등 11개 학과
 - 정 원 : 390명
 - 원서접수
 - 농수산인재 · 도시인재 전형 : 8. 31. ~ 9. 9.(10일간)
 - 수시모집 일반전형 : 10. 5. ~ 10. 12.(8일간)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전형별 상이
 - 특 전
 - 입학금 · 수업료 · 교육교재 · 실습비 등 학비 전액 국비 지원
 - 전교생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단기 해외연수(2주 내외) 실시
 - 성적 우수자 해외 선진지 연수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에 따라 농업인 또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 추천
 - 의무사항 :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기간(6년)동안 농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f.ac.kr) 참조

주간
48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